



스위스의 작은 마을들.

스위스 그랜드 투어에 걸맞은 목적지

자동차 로드 트립에서 만나는 정겨운 마을들

관광지와 다른 면모 감추고 있는 작은 마을들

슬로우 트래블 다운 정겨움 내어주는 마을들

물론, 대중교통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마을들

나만 찾아낸 것 같은 이곳!

여행의 묘미 주는 마을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라는 테마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알프스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오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스위스 전역을 달리며 5 개의 알프스 고갯길, 22 개의 호수, 12 개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보다, 여유를 갖고 국도를 이용해 풍경 속을 달리며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행법이다.

더욱이 세계 최초로 전기 자동차 로드 트립도 선보였다. 약 300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스위스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 1600km 이상 펼쳐진 드라이브 코스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며 스위스 자연의 품속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 각지의 호텔도 전기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직접 운전하며 여행하는 장점은 대중교통 연결편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뜸한 작은 마을을 찾아갈 때 특히 빛을 발한다. 스위스 연방 유산 목록(Federal Inventory of Swiss Heritage Sites: ISOS)에 포함되는 마을이 50 여 개 있다. 이들은 스위스에는 문화와 건축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숨은 보석들이라 할 수 있다. 여행자들이 잘 찾지 않는 보석 같은 작은 마을을 찾아 운전하다 보면 특별한 풍경을 만나기도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마을은 취리히(Zurich)에서 운전을 시작해 시계방향으로 여정을 이어가기 좋은 순서다.

1. 에르마팅엔(Ermatingen)

어촌이자 농촌으로, 포도를 재배하던 마을인 에르마팅엔은 보덴제(Bodensee) 호수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해 있다. 크로이츠링엔(Kreuzlingen)과 슈텍본(Steckborn) 사이에 있는데, 투어가우(Thurgau) 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기록에 남아있다. 마을은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호숫가에 밀집한 옛 어촌 마을인 슈타트(Stad)와 17~19 세기 지어진 목조 주택 및 화려한 건물이 뽐뽐하게 들어서 있는 아우서도르프(Ausserdorf)다. 마을의 공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 트로겐(Trogen)

트로겐은 아펜첼러란트(Appenzellerland)에서 가장 인상적인 마을 중 하나로, 개브리스(Gäbris) 산기슭 언덕 꼭대기에 자리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페스탈로치 어린이 마을(Pestalozzi Children's Village)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을의 외관은 도시와 작은 마을의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켈베거(Zellweger) 통상 가문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리넨과 면직물 통상으로 부유해진 켈베거 가문은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돌로 만든 귀족적 저택을 지었다. 마을 중앙에는 이렇게 웅장하고 클래식한 건물들이 화려한 창문을 뽐내며 오밀조밀 모여 있는데, 이 마을에 독특한 도회적 분위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다.



3. 모르코테(Morcote)

옛날 어촌 마을이었던 모르코테는 루가노(Lugano) 호수에 면해 있으며, 티치노(Ticino) 주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장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2016년에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혔을 만한 풍경을 선사해 준다. 호숫가에는 팔라초 팔레아리(Palazzo Paleari) 등 웅장한 건물 여러 개와 함께 수많은 소박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이 건물 뒤로 중세에 만들어진 골목길이 약 400 계단을 거쳐 산타 마리아 델 사소(Santa Maria del Sasso) 성당으로 이어진다. 아름다운 개울과 여러 개의 길가 예배당이 아름답다. 꼭대기에 도착하면, 모르코테 마을과 루가노 호수의 절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4. 조르니코(Giornico)

조르니코는 레벤티나(Leventina) 지역 한복판에 있다. 마을은 한때 역사적인 고타드(Gotthard) 루트를 건너는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숙박지였다. 마을은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좁은 골목에 옛 와인 생산자들의 가옥이 즐비하다. 토레 디 아토네(Torre di Attone)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이고, 성 니콜라오(St Nicolao) 성당은 티치노 칸톤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 중 하나다. 산 미켈레(San Michele) 성당은 16세기의 날개 달린 제단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데, 성 니콜라오 성당 바로 옆에 있다. 50개의 문장이 벽화를 이루고 있는 카사 스탄가(Casa Stanga)도 마을의 중요한 건축물이다.

5. 로이크(Leuk)

발레(Valais) 주의 온천 마을, 로이커바트(Leukerbad)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마을이다. 로이크 마을 광장을 아침 녀에 걸어서 지나가 보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좁은 골목길과 구석진 곳곳을 탐방하다 보면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로마제국 시대의 벽난로부터 중세 시대 주교의 성까지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건물은 과거 영화로운 시대의 증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감수와 새로운 시각으로 로이크 고성이 개조되어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6. 사이옹(Saillon)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곧 아주 훌륭한 과거의 모습을 만난다. 시간의 흐름에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듯한 천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사이옹 마을에는 오래된 작은 탑이 있는데 고풍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대 로마시대와 중세 시대를 겪어낸 풍경을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 다리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도밭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포도밭은 달라이 라마가 소유한 것으로, 약 반 평에 불과하다.

7. 생모리스(Saint-Maurice)

지리적으로는 발레 주에 속하는 생모리스는 포르테-뒤-솔레이(Portes-du-Soleil) - 샤블레(Chablais) 지역의 문화적 보석으로 불린다. 레만(Léman) 호수와 알프스 고봉 사이에 위치하며, 론 강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로, 문화적 유적 및 종교적 가치로 그 매력을 더하고 있다. 모리스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지순례지로 중요한 마을이다. 이곳의 수도원은 15세기가 넘도록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국가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는 이 마을은 오늘날 특별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생 모리스 수도원은 515년에 부르그뉴의 왕 시지스몬드(Sigismond)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수도원의 값비싼 금세공품들은 과거의 영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8. 생사포랭(Saint-Saphorin)

햇살이 비치는 와인 산지 생사포랭은 레만 호수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라보(Lavaux) 포도밭 언덕에 동지를 틀고 있다. 좁은 골목길과 자갈이 깔린 차마가 마을 중심부의



특징이다. 길을 따라 와인 생산자의 가옥과 소박한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 집들은 석회로 칠한 외부와 대칭적이고 화려한 전면을 특징으로 한다. 파펠플라츠(Pappelplatz)라 불리는 마을 광장에는 종탑과 식당으로 유명한 여인숙, 오베르쥬 드 롱드(Auberge de l'Onde)가 있다.

9. 루쥬몽(Rougemont)

루쥬몽은 고성과 전통적인 농가로 잘 알려진 마을이다. 빼이덩오(Pays-d'Enhaut) 지역 동쪽 끝자락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로, 잔느(Sanne) 강이 흐른다. 보(Vaud) 주 알프스의 풍경을 담고 있는 마을에 11세기 후반에 지어진 클뤼니(Cluniac) 수도원 건물이 이 지역 거주 역사의 초창기 면모를 보여준다. 1572년에 처음 지어졌다가 1750년대에 재건된 고성은 거대한 직육면체 구조물이 인상적인데, 안뜰도 아름답다.

10. 부르그도르프(Burgdorf)

작은 마을인 부르그도르프는 이곳 이름과 같은 치즈로도 유명하다. 널찍한 농가들이 자리한 언덕이 아름다운데, 에멘탈(Emmental)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이 되어준다. 구시가지에는 후기 바로크 양식의 저택과 중세 고성 이 자리해 있다.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고성이 마을 풍경을 대표한다. 체링엔(Zähringers) 가문이 엠메(Emme) 강 왼쪽 바위 언덕 위에 지은 성이다. 지금은 유스호스텔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성 박물관도 들어서 있다.

11. 쎄파흐(Sempach)

과거 무역이 성했던 어촌 마을로, “쎄파흐 전투”로 잘 알려진 마을이다. 유서 깊은 구시가지와 쎄파흐 호숫가에 자리한 아름다운 위치로 무척 포토제닉한 마을이기도 하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세운 마을로, 호숫가와 고타드(Gotthard) 루트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1386년 스위스 연방이 쎄파흐 전투에서 합스부르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호숫가를 따라 녹초 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새 관찰도 할 수 있는 대형 공원이 있다.

12. 베로윈스터(Beromünster)

베로윈스터 마을은 발데거(Baldegger) 호수와 쎄파허(Sempacher) 호수 사이, 완만한 언덕에 있다. 웅장한 수도원 구역뿐만 아니라 옛 라디오 방송국도 있는데, 수도원이 있는 마을답게 스위스 최초의 활판 인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30년대에 스위스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 마을인데, 바로 “라디오 베로윈스터” 덕분이었다. 215m의 라디오 타워가 풍경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근처에 있는 바로크 공원, “발트카펠레(Waldkapelle)”에는 밤나무와 서어나무 가로수가 즐비하다.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13. 브렘가르텐(Bremgarten)

유서 깊은 작은 마을 브렘가르텐은 취리히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로이스(Reuss) 강이 삼면으로 둘러싼 보행자 전용 구시가지는 국가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다. 로이스 강이 흐르고 중요 도로가 교차하는 까닭에 중세에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있는 목조 다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준다. 마을 아래쪽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는 구역이 있고, 위쪽에는 슬뢰슬리(Schlössli)라 불리는 고성과 아름다운 건물이 즐비한 마르크트가세(Marktgassee)가 있다.

14. 슈탄스(Stans)

슈탄스는 니드발덴(Nidwalden) 칸톤의 주도다. 슈탄저호른(Stanserhorn) 산 아랫마을로, 슈탄저호른 정상으로 향하는 오픈 데크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큼직한 마을 광장이 특히 웅장한데,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이 마을의 모든 길은 별 모양 패턴으로 형성되어 이 광장으로 이어진다. 교회탑이 풍경의 중심으로, 마을 중심에 서있다. 과거 카푸친(Capuchin) 수도회가 마을 위쪽 끝자락에 있었다. 마을 외곽으로 가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받은 빈켈리드하우스(Winkelriedhaus) 건물이 있는데, 박물관을 찾아볼 수 있다.

15. 바우엔(Bauen)

루체른 호수 끝자락에 있는 우리(Uri) 호수 유역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다. 인상적인 산악 지대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주에서 가장 작은 자치구다. 예전에 바우엔 마을은 호수를 건너거나 좁은 산책로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다. 1875년에 정규 배편이 개통됐고, 1956년이 되어서야 이스레텐(Isleten)과 바우엔 사이에 진입로가 건설되었다. 한층 나아진 접근성 덕분에 바우엔은 인기 휴양지로 부각됐다. 작고 역사적인 마을 중심지는 주거용 주택과 숙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앙 스위스 지역 특유의 농가 주택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들 건물 대다수는 호수를 향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작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광장에는 바우엔에서 태어나 스위스 국가를 작곡한 알베릭 츠비식(Alberik Zwyssig) 기념비가 서 있다. 그가 태어난 집은 비석 위에 세워져 있고, 지금은 “츠비식하우스(Zwyssighaus)”라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용된다.

16. 슈비츠(Schwyz)

유서 깊은 슈비츠 마을은 슈비츠 칸톤의 주도다. 그로서 및 클라이너 미텐(Grosser and Kleiner Mythen) 산의 완만한 언덕 발치에 자리해 있다. 스위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로크 시대 광장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운 광장은 바로크 시대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 있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 서부에는 카푸친 수도원이, 동쪽에는 도미니크 수녀원이 있는데, 그 중간이 마을 중심이다. 아름다운 알프스 마을, 슈토스(Stoos)로 향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쿨러가 슈비츠 마을에서 출발한다.

17. 생 우어잔(Saint-Ursanne)

이 여정을 취리히에서 시작하지 않고, 바젤(Basel)에서 진입했을 때 들르면 좋은 마을이다. 전설에 따르면 생 우어잔은 고립된 지역에 은둔하여 살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수도사 우르시니쿠스(Ursinicus)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곳은 자석의 힘이 이끄는 듯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고작 몇 백 명의 사람이 이곳에 거주하지만, 두(Doub) 강의 제방에 자리한 생 우어잔은 여전히 고요와 여유가 존재하는 마법 같은 마을이다. 18 세기에 지어진 다리, 폰생장(Pont Saint-Jean)이 특히 눈에 띈다. 세 개의 게이트와 좁다란 골목길, 가옥이 즐비한 광장이 아름답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